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口

미각체험 『음식』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경기도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5가지 테마로 나눈 한국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거리를 좁히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오감 (the five senses)은

미각(the sense of taste),

시각(the sense of sight),

후각(the sense of smell),

청각(the sense of hearing),

촉각(the sense of touch)을 말하며

각 회차 별로 한 가지의 테마를 체험합니다.

문화는 국경과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를 만나다.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처음 발을 디딤니다.

내 나라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김새도 나와 닮은 나라.

걱정도 많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길을 선택했던 목적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가족 생각에 고향 생각에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거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더 낯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듣는 가족의 목소리.

힘내라는 한 마디에 나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던 사람들이 날 보며 웃어주듯이

이젠 나도 어렵고 다르다고만 느꼈던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서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나러 갑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미각체험 『음식』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사업목적

- 경기도의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느끼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고,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 경기도내 전통문화를 테마로 나누어 체험함으로써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이해 고취와 다문화 커뮤니티 사회 구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의 계기

◆ 행사일정

- 1차 : 2008년 10월 23일(목) - 시각체험 (수원 - 성곽)
 - ▶ 화성홍보관 견학, 수원 화성 견학, 무형문화재 전수관 견학, 수원역사박물관 견학 등
- 2차 : 2008년 10월 26일(일) - 촉각체험 (이천 - 공예)
 - ▶ 해강도자미술관 견학, 도자기 강좌, 도자기 만들기, 도예촌 또는 세계도자센터 견학 등
- 3차 : 2008년 11월 6일(목) - 미각 체험 (여주 - 음식)
 - ▶ 오감도토리마을 방문 및 체험(도토리묵 만들기 등)
- 4차 : 2008년 11월 9일(일) - 청각체험 (안성 - 음악)
 - ▶ 소리 박물관 견학, 남사당전수관 공연 관람 및 체험 등
- 5차 : 2008년 11월 둘째주(예정) - 후각체험 (김포 - 茶)
 - ▶ 다도 박물관 견학 및 다도예절 교육 등

◆ 사업개요

- 일 자 : 2008년 11월 6일(목)
- 장 소 : 경기도 여주군, 오감도토리마을 일대
- 주 제 : 미각체험 - 음식
- 참가대상 :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 참가인원 : 42명 (진행요원 포함)
- 주 최 : 경기도
- 주 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1:00 - 12:00	도토리송편 빚기	
12:00 - 13:00	중식	
13:00 - 14:00	야생화를 이용한 손수건 탁본	
14:00 - 15:30	인절미 만들기	
15:30 - 16:00	고구마 캐기	
16:00 - 16:10	이동	
16:10 - 17:00	여성생활사박물관 관람	
17:00 -	귀가	

목 차

◆ 한국문화

문화일반	3
한국의 문화상징	4

◆ 미각체험 - 음식

한국의 식생활	9
경기도의 음식	10
여주군	12
오감도토리마을	15
여성생활사박물관	20

한국문화

미각체험 『음식』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문화 일반

♣ 언어 - 한국어

표준어는 '현재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중류층의 언어'이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투리를 쓰지만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 문자 - 한글

♣ 종교

한국은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 중 53.6%가 종교를 갖고 있다(1999년 기준). 불교 26.3%, 기독교 18.6%, 가톨릭 7.0%이며, 그 밖에 천도교, 원불교 등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종교와 다양한 소수 종교가 있다.

♣ 스포츠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다. 올림픽에서 세계 10위권에 들 정도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프로축구인 K-리그를 비롯하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몇 가지 종목에서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 레슬링, 유도, 태권도, 탁구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골프 분야에서도 많은 스타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 대중문화

한국은 뛰어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문화국가이다. 고전예술과 대중예술이 두루 한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손꼽히는 것은 영화산업인데, 2004년에는 칸느, 베니스, 베를린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감독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휩쓸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문화 상징

♣ 한복



한복은 2000년 전부터 입어 온 한국인의 옷이다. 한복은 넉넉하고 부드러운 옷으로 남자옷(바지저고리)과 여자옷(치마저고리)이 조금 다르다.

추울 때는 외출복으로 남녀 모두 두루마기를 덧입는다. 발에는 양말과 비슷한 버선을 신고 가죽신이나 고무신을 신는다.

오늘날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주로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날에 입는다.

♣ 탈춤



탈춤은 탈(가면)을 쓰고 등장한 인물들이 펼치는 민중 연극이다. 가난한 백성, 하인, 천민이 자신들을 억누르는 지배계급을 놀리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은 저항과 풍자가 담긴 탈춤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풀어냈다. 공연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 따라 이야기와 춤이 다르므로 등장하는 탈도 다르다. 탈춤은 일본 강제 점령기에 금지되어 사라졌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활

발해졌다. 지금은 직접 탈을 만들고 탈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 고려인삼



인삼 뿌리는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인삼은 피로를 풀어주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고,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있다. 인삼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산출되는데, 한국 인삼(고려인삼)이 가장 좋은 인삼으로 꼽히고 있다. 고려인삼의 신비로운 약효는 17세기 초부터 널리 알려졌다.

인삼은 처리 및 보존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밭에서 수확한 인삼은 '수삼'이라 하고, 수삼을 건조시킨 것을 '백삼'이라 한다. 또 수삼을 찌서 말린 것을 '홍삼'이라 한다.

인삼을 가공한 상품으로는 인삼차, 인삼주, 분말, 절편, 초콜릿, 사탕 등이 있다.

♣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무술 중의 하나이다. 한국 전통무술에는 태권도 외에도 손을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백치기, 섬세하고 부드럽게 몸을 놀리면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태권, 검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전통무술은 태권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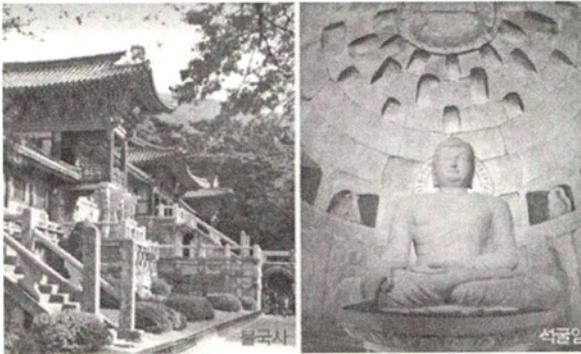
오늘날에는 올림픽의 경기종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태권도는 기술보다 정신적 수련이 더 강조되며, 신체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어린이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태권도를 많이 배운다. 전국 곳곳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도장이 있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국의 문화상징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에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많이 있다. 이 중 서울에 있

는 창덕궁과 종묘, 수원의 화성,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 한글과 조선시대 왕조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 불국사와 석굴암



오랜 불교국가였던 한국에는 사찰, 경전, 불상 등 불교에 관련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서기 751년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불국사는 사찰건물만이 아니라 딸려 있는 탑과 조각품 모두가 신라시대의 불교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훌륭한 것들이다.

인공적으로 만든 석굴 안에 돌로 만든 대형 부처님을 모셔놓은 석굴암은,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건축기술로 뛰어난 신라시대의 불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전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지내는 제사와 이때 연주되었던 음악과 노래 등 왕조 제사 문화 일체를 뜻한다. 한국의 왕실에서 연주되는 각종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등이 총동원되며 장중하고 우아하다. 서울 종로 4가에 있는 종묘에서는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제례를 재현한다.

♣ 한글

한글은 15세기 중반, 조선의 4번째 왕인 세종대왕이 만든 것으로 아주 과학적인 글자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미각체험-음식

미각체험 『음식』

Touch sense

Sight sense

Auditory sense

Smell sense

Taste sense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여 백

한국의 식생활



식생활이란 식량, 식품의 조리·가공, 식사와 조리용구, 식습관, 식사규범, 기호 등을 주요 요소로 하는 인류의 기본생활 중 하나이다. 식량은 생명의 유지, 성장, 발육, 활동력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급원이고, 조리·가공의 기술은 식량의 영양상·기호상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한 수단이다. 식생활의 기본의의는 인류의 생활문화 형성에 기본 바탕이 되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식량의 생산수단이 농업위주일 때에는 토지에 정착한 농업사회문화를 이룩하게 하고, 목축을 위주로 할 때에는 이동성 생활문화 유형을 형성하게 한다. 또, 산출되는 음식의 특성에 따라 상용음식의 유형이 특성지어지고, 상용음식의 유형에 따라 식생활 용구도 특성 지어지며, 나아가서 식습관이나 기호에까지 차이점을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작은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평야, 강, 바다 등을 구비하고 있어서 다양한 식품이 산출되었다. 일찍이 북방문화에 접하여 잡곡농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도작(稻作)문화가 유입됨에 따라 벼농사의 발달과 진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식생활은 쌀을 제1의 상용주곡으로 하되 그 외에 기장, 콩, 팥, 보리를 많이 혼용하였다. 채식으로 쓰는 재료는 주로 산야에 자생하는 각종 나물이었으며 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도 종류가 많았다.

경기도의 음식

경기도의 음식은 서해안의 해물과 산골의 산채·밭곡식 등 여러 가지 식품이 골고루 있어 다양하고, 음식의 품은 소박하여 간은 중간 정도이며, 양념도 수수하게 쓰는 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강원도·충청도·황해도와 접해 있어 이들 지역과의 공통점이 나타나며, 음식명도 같은 것이 많다.

범벅이나 풀떡죽·수제비같이 호박·감자·강냉이·밀가루·팥 등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많아진 것에 비해 경기도 음식은 간이 중간 정도이며, 덜 자극적이다. 김치류도 채소의 본래 맛이 살아 있는 느낌이고, 시원한 맛이 강조된 우리나라 중부 지방 음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품재료·기후·조리기구·연료 등을 들 수 있다. 교통, 조리기구, 연료 사용의 발달 등으로 식생활이 동질화(同質化)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생업과 환경에 따른 약간의 지역적 차이는 남아 있다. 한 예로 젓갈류의 이용을 들 수 있다. 농촌인 김포와 여주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젓갈을 자주 먹지는 않고, 먹을 경우에도 사서 먹는다. 산촌인 가평지역의 경우에는 집에서 젓갈을 담는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즐겨 먹지도 않는다. 이에 비해서 화성의 어촌에는 집에서 젓갈을 담는 집도 많고 젓갈의 종류도 산촌이나 어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울러 국수를 만들 때에도 농촌과 산촌에서는 주로 밀치나 조미료로 국물을 만드는데 비해서 어촌에서는 맛이나 조개·새우 등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절식’으로는 설날에 떡국과 만둣국 등을 해먹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가평에서는 만두 속의 재료로 꼭 무를 넣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 당면을 넣는 지역도 있다.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오곡밥·묵은나물·부럼을 먹고, 단오에는 쑥개떡과 밀전병을 먹는다. 8월 추석에는 대개 흰송편과 쑥송편을 빚는데, 송편의 소로는 깨·녹두·팥·햇콩을 넣는다. 동지에는 대부분 팥죽을 쑤어 먹지 않으나 쑤는 경우에는 옹시미를 넣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음식에 대한 금기가 전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면 닭·게·오징어와 감자의 푸른 부분, 그리고 참외와 계란 등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의례음식’ 중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행해지고 있는 것은 돌 음식이다. 돌상에

서는 백설기·수수팔떡·송편·인절미 등의 떡과 각종 계절과일, 잡채 등으로 잔치 음식을 차린다. 그리고 돌잡이를 할 때 남자 아이에게는 활을, 여자 아이에게는 실패를 놓는 지역도 있다. 백설기는 백세가 되도록 희고 맑게 살라고, 수수팔떡은 붉은색으로 잡귀 등 온갖 나쁜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활과 실패는 각각 용맹과 손재주를 상징한다.

예전에는 환갑이 아주 큰 잔치였다. 김포와 가평에서는 망령이 난다고 하여 환갑이 넘은 사람의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이지 않고 무 소고기국을 끓인다. 제사 때에는 탕은 3탕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대개는 한 가지 탕만 올리고, 나물은 숙주·고비·고사리·도라지 등의 나물을 3색 또는 5색으로 한다. 적은 3적을 쓰는 경우가 많고, 식혜와 수정과는 집에서 만들지만, 약과는 마을에 한 집 정도 만드는 집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개는 유과와 같이 사서 이용한다. 의례음식은 그 지역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집보다는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치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 동질화되어가는 추세이다.

특히, 오늘날 집에서 술을 빚는 일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나 몇몇 가정에서는 고사를 지낼 때 누룩을 사다가 술을 빚거나 명절에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양주를 담기도 한다. 경기도에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을 계명주(남양주시)·부의주(화성시)·군포당정옥로주(용인)·광주산성소주(광주시) 등이 있다.

출처 : 『경기도 바로알기』, 경기도, 2008

1. 여주의 어제와 오늘

여주는 경기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우리나라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이 완만한 경사를 지으며 한강을 끝으로 서서히 멈춰지는 곳으로 이른바 여주 평야가 남한강을 끼고 펼쳐져 있다. 기후의 특색은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를 나타내어 삼한사온이 뚜렷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1985년 충추댐 건설로 일부지역에 기온변화가 생겨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을 뿐 아니라 봄·가을에는 안개가 자주 끼는 것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났다. 일찍이 청동기시대부터 벼농사가 시작된 곳으로 여주군의 재배면적 10,143ha에 51,388톤이 생산되어 아밀로스가 다른 쌀에 비하여 적게 함유되어 최고의 밥맛을 인정받아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했으며, 1998년에는 전국농산물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또한 도자기 역시 고려시대부터 자기원료 주산지로서 이름이 났고, 조선조에는 백자의 근원지가 되었으며 북내면 일원에는 6~7백여개의 도자기 생산업체가 있어 청자, 백자, 분청, 와태, 생활자기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대축제는 전국단위 행사로 여주도자기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명실공히 문화와 역사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 역사문화자원 (역사적 사건과 현장)

- **농경문화발달의 미작사(米作史)** 여주는 삼한시대 이후 백제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골내근현이라 하였고, 삼국의 각축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황효현, 황려현, 여흥군, 여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1977년 서울대 박물관의 발굴조사로 확인된 점동면 혼암리 집터와 반월형석도, 갈돌, 무문토기, 홍도를 비롯하여 탄화된 보리, 조, 수수가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는 이 지방에서 농경문화가 발달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우리나라 미작사와 벼농사의 전개경로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각종 유물 발견과 문화적 자료 대신면 천서리에 있는 파사성은 신라 파사왕 2년(82) 해발 230m 정상부분을 중심으로 축성된 성인데 마제석축이 발견되었다. 여주읍 떡곡리의 민무늬토기, 마제석부, 빗살무늬토기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의 유적이며 여주읍 매룡리 고분군의 시기를 달리하는 축조양식과 출토된 고배 도자, 석침 등 7세기의 토기류가 발견되어 여주군은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큰 세력을 이룬 토착집단이 살았던 것을 알려주는 문화적 자료이다.
- 창의군의 의병항거 심상희 의병은 북내면 태생으로 1895년 12월 30일 일제의 단발령공포에 분개하여 여주창의군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수비대를 격파하고 끝까지 항거하였다.
- 3·1독립만세운동 앞장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신록사 주지인 김용식 스님은 절에서 뛰어나와 당우리와 천송리 주민 200여명을 우선 모아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섰다.
- 임진왜란시 신록사에서 승전 원호 장군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1553-165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하여 여주 신록사에서 왜적을 크게 무찔러 대승전했고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3. 생활문화자원

♣ 전통생활민속

- 쌍용거 줄다리기 점동면 혼암리 쌍용거 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 하루 전날 온 마을 사람들은 물론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 서낭제 대동우물고사, 강고사, 집고사 등을 한 후 흥겨운 농악놀이에 맞춰 쌍용거 줄다리기가 끝나면 그 줄을 강에 띄워 액을 떠나게 하였다. 1987년 제2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혼암리 쌍용거 줄다리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답교놀이** 점동면 원부리 답교놀이는 청미천에 나뭇가지 위에 뗏장으로 놓은 다리 위에서 정월상원일에 달이 떠오르면 흥겨운 농악에 맞춰 온마을 사람들이 다리위를 밟으며 소원성취를 빌었는데 아주 예부터 행하여졌다고 한다. 1983년 민속학자 임동권 교수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매년 축제로 행하여지고 있다.

♣ **구전설화**

- **마암(馬巖)의 전설** 한 노인이 강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인이 비명소리를 질러 급히 강을 건너가 그 여인을 배에 태우려 할 때 뇌성병력을 치며 비바람이 불었다. 그 때 어디선가 누런 말과 검은 말이 나타나 여인은 재빠르게 황마에 오르고 뒤따라온 사나이는 여마에 올랐다. 깜짝 놀란 노인은 말들이 떠난 자리를 살펴보니 큰 바위만이 우뚝 서있었다. 이때부터 그 바위를 황마(黃馬)와 여마(麗馬)라 부르게 되었는데 지명도 황려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4. 관광자원

- **세종대왕릉** 조선 제4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합장릉이다. 우리 역사상 가장 성군으로 한글 창제, 측우기 같은 과학기구발명, 아악 정리, 북방 4군6진 개설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했고 용비어천가 등의 많은 책을 만들었다.
- **신륵사** 신륵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남한강을 끼고 있는 경치가 참으로 아름다운 절이다.
- **명성황후** 생가 여주읍 점봉리에 고종황제의 비인 명성황후가 태어나 16세까지 살았던 집

오감도토리마을

1. 마을의 역사 및 유래

♣ 역사



가야리는 본래 강원도 원주군 강천면의 지역으로서 남한강가가 되므로 개골, 갯골 또는 개곡, 가야동이라 한다.

마을 안에는 점말과 봉바위가 있는데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교리를 전 달하기 위해 옹기그릇을 만들었다 하여 점말이

며, 봉바위는 부엉새 형태의 바위가 있어 봉바위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유래



본 마을은 본래 강원도 원주시관할이었다.

가야리는 개골, 갯골, 가야 동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고종 32년(1895) 여주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오감, 점말, 봉바위, 삼문절이, 고로동을 폐합하여 가야리라 하였다.

혼암리(점등면)에서 탄화미가 발굴된 것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된 마을로 보여진다.

또한, 도토리마을인 가야리는 '오감마을'로도 불린다. 고려말에 다섯명의 대감이 낙향해 터를 잡고 살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그중 안동 권씨, 용인 정씨, 하천 이씨 등은 의형제를 맺어 지금도 그 전통과 문화가 생생하게 남아있다.

- 갯 골 가야리, 가야동, 개골, 갯골이라 불리우는 현재의 가야리를 이른다. 개(浦물가) + 골(谷)
- 보광터 고려때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 기금을 마련하여 백성에게 이자를 놓아 이자수익으로 충당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을 보(寶)라고 하였고, 재단의 곡식을 두는 창고가 있던 터로 붙여진 이름이다.
- 봉바우 봉바위가 있는 마을. 부락앞 강변에 봉황새와 같은 바위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 바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발안수 약수가 나오는 곳으로 사발처럼 생긴 모양에서 유래되었다.
- 약물탕 갈갱이 약물탕, 담비, 호랑이 등이 나오는 골짜기에 있는 약수로 옛날에 앓은뱅이가 이 물을 먹고 나았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 원수골 옛날에 많은 도적떼로 인하여 원망이 많았다는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 오 감 오감동(마을) 점말 동쪽에 있는 마을, 다섯 대감이 살았다 한다. 오목(凹)+ 안(內)
- 점 말 점촌 회사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옹기점이 있었다.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옹기를 구워 생활하였다.
- 족두리 바위 봉바우 북쪽에 있는 마을. 족두처럼 생겼음. 흔들바위로 이괄 장수가 앓았다는 말이 전해진다.

2.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 春 |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싱그러움 봄체험
 - 미나리캐기, 감자심기, 모내기, 볍씨붓기 등



| 夏 |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만 느낄 수 있는 여름체험
 -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손수건 탁본 등



| 秋 | 수확의 계절 가을!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체험
 - 고구마캐기, 옥수수따기, 도토리줍기, 밤줍기, 김장체험, 손수건 탁본 등



| 冬 |

처마 밑 고드름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체험
 - 썰매타기, 팽이치기, 짚신만들기



3. 체험프로그램 정보

◆ 도토리 송편 빚기



오감도토리마을에서 나는 도토리가루를 송편에 넣어 도토리 송편을 만든다. 도토리는 비만을 억제에 탁월한 음식으로 도토리의 떫은맛을 내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지방성분을 억제하고 지방의 배설을 촉진한다. 도토리 외에도 썩이나, 포도, 호박 같은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송편과 함께 만들면 더욱 좋다.

① 사전준비

- 멧쌀을 불린 다음 도토리가루를 넣고 소금 간까지 한 기본 반죽을 만들어 놓는다.

② 음식 만들기

- 기본 반죽 만드는 법을 설명한 후, 모임별로 반죽을 떼어준 후 더욱 찰지도 록 반죽한다.
- 소는 단맛이 강하게 나는 깨와 설탕을 이용한다.

- 소를 넣고 예쁜 모양으로 송편을 빚게 한 다음 찜통에 넣는다.
- 찜통보다는 가마솥이 더 좋으며, 이때 솔잎을 깔고 찜는다.

◆ 야생화를 이용한 손수건 탁본



- 하얀 손수건과 알록달록 예쁜 꽃, 그리고 손가락을 준비한다.
- 책상 위에 하얀 종이를 깔고 그 위에 꽃과 하얀 손수건을 차례대로 올린 다음에 오른손에 손가락을 든다.
- 들고 있는 손가락으로 꽃모양에 맞게 손수건위쪽을 두드려준다.
- 손수건에 예쁜 꽃이 담기면 손수건을 떼어내고 확인해본다.

◆ 인절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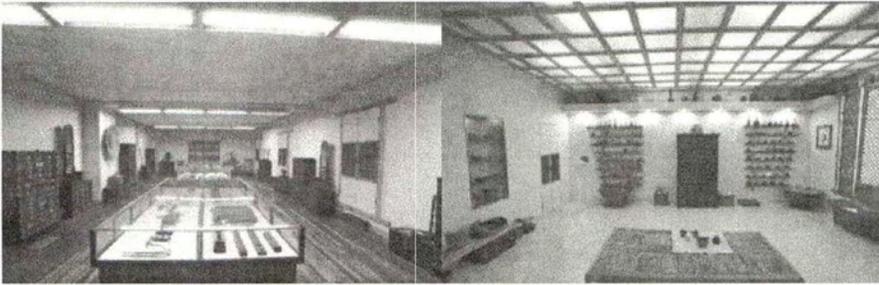
- 찹쌀가루와 사이다를 1:1 분량으로 섞는다.
- 찹쌀가루와 사이다 섞은 것에 소금 약간을 넣고 덩어리가 없게 잘 섞어준다
- 그릇에 반죽을 담고 랩을 씌어 구멍을 작게 2~3군데 뚫고 3~4분 동안 전자레인지에서 익힌다.
- 떡반죽을 길게 만든다.
- 콩가루를 골고루 묻힌다.
- 인절미 완성!!

◆ 고구마 캐기 : 농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고구마 캐기 체험

여성생활사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에 위치한 강천초교 강남분교 폐교에 자리한 박물관으로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이 살아있는 이곳은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생활용품 및 장신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은 고유의 민속문화를 조사 발굴하여 연구하며 또한 자연을 이용한 우리 고유의 빛깔을 만들어내고 이를 문화교육 및 생활문화 전시로 재조명하여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민족을 알아가고 또한 자연과 인간의 친화력을 향상시킴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문화의 마당, 교육의 마당으로 활용함으로써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고자 한다.



1. 박물관 개요

현황	박물관명	여성생활사박물관		
	설립일	2001년 6월 24일		
	소장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유물 : 229종 1,748점 ◆ 소장유물 : 455종 3,580점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9-3	전화	031)882-8100
			팩스	031)881-5873
홈페이지	www.womanlife.or.kr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여성생활사유물의 조사수집 <li style="width: 50%;">◆ 여성생활 관련 사회교육 추진 <li style="width: 50%;">◆ 여성문화 이해증진 <li style="width: 50%;">◆ 여성관련 문화예술행사 개최 <li style="width: 50%;">◆ 여성생활관련 유적발굴 <li style="width: 50%;">◆ 유물의 관리 및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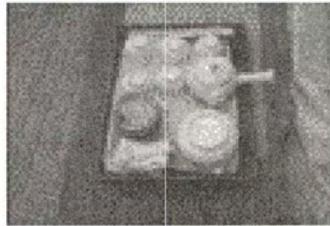
2. 박물관의 특징

분류	계통	인문계박물관 + 자연계박물관	· 여성생활과 관련된 역사적 민속적 유물이 전시된 인문계박물관이지만 식물원료식물과 천연염색원료식물 재배장, 천연염색연구소 등 자연계박물관으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분야	전문박물관	· 국내 유일의 여성생활사박물관으로서 여성생활사, 특히 직물분야의 전통직물 및 복식·전통장신구·전통천연염색직물·전통직물용기·현대천연염색·직물원료식물 및 천연염색원료식물 재배장이 갖추어진 여성생활사테마박물관이다. 이미 문화관광부에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도에서 지정된 테마박물관이다.
	공간	옥내전시박물관 + 옥외전시박물관	· 박물관 전시의 공간구성은 유물이 있는 옥내뿐만 아니라 천연염색체험장, 식물원료식물 및 천연염색원료식물 재배장, 동·식물생태학습장이 있는 옥외까지이다.
전시주제	직물(衣)		·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직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전시부제	부엌용기		· 여성생활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전통 부엌용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가구		· 직물과 가장 밀접히 관계된 직물 보관용 장과 농을 다량 전시하고 있다.
	여성생활용기		· 의(衣) 식(食)과 관련된 유물 이외에 생활용기들을 다량 전시하고 있다.
	다기(茶器)		· 여성의 여가생활인 다도(茶道)에 필요한 다양한 다기가 전시되어 있고 다도학습장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관련 예술작품		· 모정, 인정, 동정, 주체성 등 여성적 가치에 근거한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해 나가고 있다.
직물전시 현황	복식 (15종 89점)		· 고쟁이, 저고리, 답호, 원삼, 땡기, 조끼, 적삼, 운혜, 관복, 족두리 등 70년에서 450년에 이르는 유물 전시
	천연염색직물 (670점)		· 모시, 명주, 무명, 삼베 등에 130가지 색깔로 염색된 염색직물원단 전시
	직물예술품 (13종 126점)		· 조각보, 수저집, 베개마구리, 바늘꽃이, 밥망, 두루주머니, 상보, 열쇠패 등 전시
	직물염색식물 및 식물원료식물		· 쪽, 치자, 홍화, 밤, 은행, 콩, 창포, 고구마, 쑥, 삼베 등 30여종 재배

3. 전시실 전경



4. 다도 예절 교육



◆ 다관



끓여서 알맞게 식힌 물과 차를 넣어 우려내는 주전자. 다기를 선택할 때 가장 잘 골라야 하는 것이 다관이다. 기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기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물이 다간와 부리를 타고 줄 줄 흘러내리는 것이다. 직접 물을 따라보고 사는 것이 좋겠지만, 다기를 고를 때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차관에서 물을 따르는 부분인 부리가 몸체에 올려 붙지도 내려 붙지도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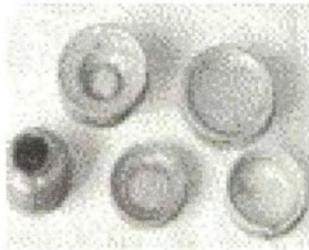
또 새의 목처럼 생긴 그곳이 알맞은 곡선을 이루어야 한다. 지나치게 휘면 물줄기가 휘고, 밋밋하면 반드시 찻물을 끓일 때 물이 흘러내린다.

부리가 몸체보다 길면 다관 입부에서 찻물이 먼저 흐르고, 부리가 몸체보다 짧으면 물줄기가 세어서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나오는 구멍이다. 구멍이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좋은데, 자른 각도가 밑으로 많이 쳐지면 물이 흘러내리고, 수평이면 물이 휘어져 내린다. 다관 속의 거름망 구멍이 크면 찻잎 부스

러기가 빠져나오고, 너무 작으면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초보자인 경우 가능하면 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게 차 맛을 잘 우려낼 수 있다. 이유는 차를 넣고 물을 넣은 상태에서 용적률이 90~90%일 때 가장 좋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관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경우 어떤 특정한 차 맛을 깊게 음미하기 위해서는 전용 다관을 사용해 보면 아주 특별한 차 생활을 할 수 있다.

◆ 찻잔, 차종



차를 마시는 용기. 찻종이라고도 하고 찻잔이라고도 한다. 우전차나 화전차 등등의 고급차로 여겨지는 차를 특별히 음미하고자 할 때는 작은 잔을 사용하는 게 깊은 맛을 느끼기에 적합하다.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차가 아닌 특별한 차의 맛을 내고자 할 때는 전용 다관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찻잔 또한 전

용 찻잔을 사용하기를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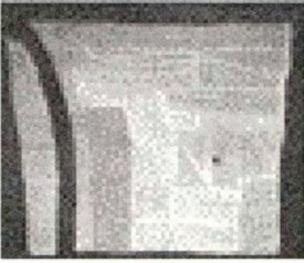
찻잔은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이 좋은 것이 중요하다. 위가 벌어진 것, 종지 형태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개인의 기호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대용차와는 달리 녹차는 한 잔만 마시지 않고 여러 잔 마시므로, 지나치게 크지 않은 것을 고른다.

◆ 찻 사발



보통 사발정도(입지름 3cm 적당)의 큰 그릇 모양의 찻사발을 사용한다. 큰 찻사발은 두 사람 이상의 순배용으로 사용하며 작은 찻사발은 각자 잔으로 쓰인다. 청자 혹은 흑 유류의 찻사발이나 회백, 회청색의 분청다완이 말차용 찻사발로서 품위 있으며 적당하다.

◆ 다포(차상포)



차포는 차상 위에 까는 삼베, 무명 등의 천으로 청결과 물기의 흡수를 배려하여 삼베나 무명을 사용한다. 무명은 가격도 저렴하고 삶아 빨아서 사용하기에도 좋다. 무명 등의 천으로 떨어진 물기를 흡수하여 정갈해보이며 상의 윗면을 보호한다. 면으로 된 것은 차포라고 하며 대나무나 등나무 껍질로 만든 것은 차석이라고 한다.

차상이나 차판을 덮는 덮개보는 홍색이나 자주색보를 많이 쓴다. 차상보는 예로부터 빨강색과 남색으로 안팎을 삼아서 만들어 썼다 한다. 굳이 붉은 보자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깔이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겨울에는 무명, 여름에는 모시나 삼베를 만들어 쓰면 좋고 차상과 차반을 덮을 정도척 크기면 적당하다. 붉은 계통의 보를 쓴 것은 나쁜 것을 물리친다는 민간신앙적 의미가 있다.

발행일 2008년 11월
발행인 남선우
편집인 김성문 · 신미영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 화 (031) 239-1020
E-mail kccf-kg21@hanmail.net
Homepage <http://kccfgg.or.kr>

※ 본 책자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제작되었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한국문화

오감 체험
五感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